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林永彦**

(e-mail : yimye@hanmail.net)

目 次

1. 연구 목적
 2. 민족정체성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분석틀
 4. 민족정체성에 관한 사례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

1. 연구 목적

최근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한인들이 매년 약 1만 명이상 일본국적으로 귀화함으로써 민족정체성의 위기의식이 주요 의제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재일한인 사회의 변화가 민족정체성의 위기로서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흔히 재일한인 사회의 민족정체성을 거론할 때 일본사회와 재일한인 사회자체의 내부변화를 간과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위기의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글로벌시대 재일한인의 정체성 유형변화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대 초기만 해도 일본 입국 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등록자 가운데 재일한인의 숫자는 69만 명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60만 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재일한인 감소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일한인의 일본국적취득자수는 해마다 1만 명 전후로 알려지고

* 이 연구는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

있다. 흔히 말하는 ‘재일한인’이라고 하면 한국국적·조선국적자만을 대상으로 지칭할 경우 그들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 의식, 민족정체성까지도 포함시켜 ‘재일한인’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다¹⁾.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초국가적인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통계(법무성입국관리국, 2007)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996년 37만 명에서 2006년 말에는 75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등록자수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208만 4,919명으로 과거 최고에 달했다. 이것은 2005년도 말과 비교해 7만 3,364명(3.6%)이 늘어난 수치이며 10년 전에 비하면 66만 9,783명이 증가한 것이다. 체류자격별 외국인 등록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영주자가 84만 명, 비영주자가 125만 명이었다.

<표 1> 국적(출신지)별 외국인등록자 수의 추이(각 연도 말 현재)

국적 (출신지)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한국·조선	645,373 (43.5)	638,828 (42.2)	636,548 (40.9)	635,269 (40.9)	632,405 (35.6)	625,422 (33.8)	613,791 (32.1)	607,419 (30.8)	598,687 (29.8)	598,219 (28.7)
중국	252,164 (17.0)	272,230 (18.0)	294,201 (18.9)	335,575 (19.9)	381,225 (21.4)	424,282 (22.9)	462,396 (24.1)	487,570 (24.7)	519,561 (25.8)	560,741 (26.9)
브라질	233,254 (15.7)	222,217 (14.7)	224,299 (14.4)	254,394 (15.1)	265,962 (15.0)	268,332 (14.5)	274,700 (14.3)	286,557 (14.5)	302,080 (15.0)	312,979 (15.0)
필리핀	93,265 (6.3)	105,308 (7.0)	115,685 (7.4)	144,871 (8.6)	156,667 (8.8)	169,359 (9.1)	185,237 (9.7)	199,394 (10.1)	187,261 (9.3)	193,488 (9.3)
페루	40,394 (2.7)	41,317 (2.7)	42,773 (2.7)	46,171 (2.7)	50,052 (2.8)	51,772 (2.8)	53,649 (2.8)	55,750 (2.8)	57,728 (2.9)	58,721 (2.8)
미국	43,690 (3.0)	42,774 (2.8)	42,802 (2.8)	44,856 (2.6)	46,244 (2.6)	47,970 (2.6)	47,836 (2.5)	48,844 (2.5)	49,390 (2.5)	51,321 (2.5)
기타	174,567 (11.8)	189,442 (12.6)	199,805 (12.9)	225,308 (13.4)	245,907 (13.8)	264,621 (14.3)	277,421 (14.5)	288,213 (14.6)	296,848 (14.8)	309,450 (14.8)
합계	1,482,707	1,512,116	1,556,113	1,686,444	1,778,462	1,851,758	1,915,030	1,973,747	2,011,555	2,084,919

주) 『平成19年版在留外國人統計』 (出版) 財団法人入管協會、2006年末現在

표 중 수치는 실수, ()안은 %

2006년도 말 현재 외국인등록자의 비율은 일본 총인구 1억 2,777만 명 중에

1) 2007년 10월 12일자 재외동포신문에 의하면 재일한인은 일본국적취득자를 포함해 실제로 893,74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재일한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안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63%를 차지했으며 2005년도에 비해 0.6%정도 증가하였다. 외국인등록자의 국적(출신지)수는 188개국에 달하며, 2002년 138개국에서 50개국 정도가 증가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신 국가별 구성 비율을 보면 한국·조선국적자(한국·북한)가 2006년도 말 598,219명으로 전체 28.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국이 26.9%, 브라질이 15%, 필리핀이 9.3%, 페루가 2.8%, 미국이 2.5%, 기타가 14.8% 순이었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조선국적자는 특별영주자수의 감소로 매년 감소추세이며 2006년도 말 59만8,219명이지만, 반대로 나머지 국적자들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재일한인 감소의 큰 요인 중 하나는 1985년 일본 국적법 개정으로 국제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선택에 있어서 ‘부모양계주의’의 도입에 있다²⁾. 이때까지는 국제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은 부친의 국적을 계승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법률개정 후에는 부모 어느 쪽 국적을 선택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느 일본국적취득자는 ‘한국계 일본인은 재일한인의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소유한 존재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일본국적취득자의 존재가 재일한인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이라는 양국 국민국가의 존재방식 그 자체를 재인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재일한인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일본국적 취득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재일한인의 경제사정과 정치사상 등이 고려 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재일한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일본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입국하여 생활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당시 일본 버블경기를 배경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입국했으며 1990년대에는 ‘출입국 및 난민인정법’이 개정되어 외국으로 이민한 일본인과 그 자손의 일본입국 및 체류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³⁾. 이것을 계기로 ‘일계인(日系人)’이 일본사회에 급증하기 시작했다⁴⁾. 그러나 일본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성은 이와 같이 급속히 진행된

2) 일본은 1985년 1월1일 개정된 신국적법을 시행하여 국적취득에 대하여 부계주의로부터 부모양계주의로 바꾸었다.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본인이자면 그 자녀는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재일한인 규모의 축소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도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되어 부모양계주의로 바뀌었다.

3) 한영혜(2006)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한국사회학회』 제71집, p. 165참조. 1989년 12월에 개정되어 199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일본 내 취로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정주자’ 라는 체류자격이 신설되었다. ‘정주자’ 는 ‘정주 인도지나 난민’, ‘일계 3세인 외국인’, ‘영주자 정주자 등의 가족’ 을 포괄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범주로서 3년간의 체류연장과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일본으로부터 해외에 주거지를 옮겨 영주를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 및 그 자손의 2세~4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도적인 장치로 충분히 대처할 수 없었다. 즉,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외국인 정책이나 법률적 제도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2> 재일한인의 연령별 구성 비율

연령별 구분	성별		합계(%)
	남성	여성	
0~4세	6,228	6,069	12,297(2.1)
5~9세	8,284	7,817	16,101(2.7)
10~14세	10,021	9,436	19,457(3.3)
15~19세	12,142	12,141	24,283(4.1)
20~24세	18,099	22,788	40,887(6.8)
25~29세	23,929	25,751	49,680(8.3)
30~34세	26,341	28,309	54,650(9.1)
35~39세	25,018	29,458	54,476(9.1)
40~44세	21,908	26,800	48,708(8.1)
45~49세	20,788	27,625	48,413(8.1)
50~54세	21,253	26,969	48,222(8.1)
55~59세	23,434	24,676	48,110(8.0)
60~64세	18,347	20,143	38,490(6.4)
65~69세	14,874	17,830	32,704(5.5)
70~74세	9,685	13,362	23,047(3.9)
75~79세	6,251	9,061	15,312(2.6)
80세 이상	9,593	13,789	23,382(3.9)
합계	276,195(46.2)	322,024(53.8)	598,219(100)

주) 『平成19年版在留外國人統計』 (出版) 財団法人入管協會、2006年末現在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일본 소수민족의 대표로서 ‘재일한인’을 의미했다. 전쟁전후부터 1980년 이전까지 만해도 과거 일본에서 재일한인이 거주 외국인 전체의 90%를 차지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재일한인의 비율이 30%도 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이제는 일본에서 ‘재일외국인’이 ‘재일한인’을 대표하던 시대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일한인의 국적취득과 관련된 행정을 담당했던 일본 법무 관리의 인용에

세 등으로 국적, 혼혈을 포함하여 모두 ‘해외일계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해외 이주 일본인의 자손으로서 일본에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 즉 일본인의 혈통을 잇는 외국인을 일컫는 명칭으로 주로 브라질, 페루 등 남미 출신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의하면 ‘다민족 다문화시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일본문화와 습관을 100% 이해하고 있는 재일한인들의 귀화(일본국적 취득)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낭비이다. 과거에 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대부분 일본국적취득을 허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일한 외국인의 급증으로 인한 일본의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동이 일본 내 재일한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연구와 관련하여 재일한인 사회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표 2>는 2006년도 말 재일한인 사회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재일한인의 성별 구성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46.2%, 여성이 53.8%를 나타내고 있다. 재일한인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14세 미만이 8.1%, 20대 이하가 12.2%, 20대가 15.1%, 30대가 18.2%, 40대가 16.2%, 50대가 16.1%, 60대 이상이 21.4%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일한인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 30대가 가장 높고 16~24세까지의 재일한인청소년의 비율은 12.9%를 차지했다. 이러한 연령분포의 결과는 재일한인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의 위기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의 위기의식 배경에는 귀화로 인한 일반영주자의 감소, 일본 내의 외국인 증가와 다민족 다문화사회 도래로 인한 재일한인의 상대적 감소, 재일한인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위기의식에는 글로벌 시대 재일한인들 자체의 의식적인 변화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분석 이면에는 ‘재일한인’을 과거 ‘재일조선인’의 박제된 상태로 보전하려는 의식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다⁵⁾. 따라서 이 논문은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위기의식보다는 다민족 다문화시대에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민족정체성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재일한인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한인사회의 형성사 및 차별과 변화가 주요 연구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어왔다. 한편 이 연구와 관련

5) 전준(1972) 『조총련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논문참조

하여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로서는 후쿠오카(1984), 후쿠오카·김명수(1997), 하라지리(1998) 등이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유형론 및 민족의식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재일한인들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김정구(2004)의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생활환경에 따라 공생지향, 조국지향, 개인지향, 귀화지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재일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접근방식을 강조하는 연구자로서는 서경식(1998)과 윤건차(2001)이며 이들 연구는 글로벌시대 재일한인의 민족의식이나 단일민족 신화의 국민국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소나 량(2005)은 총련계 재일조선인 민족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총련계 민족학교의 언어교육과 이념교육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녀는 재일조선인의 디아스포라적 특징에 대하여 사프란(1991)의 연구를 인용하여 6개로 설명하고 있다⁶⁾. 즉, 특정의 기원적 중심을 떠나 주변 외국의 영역으로의 이주, 모국에 대한 집단적 기억, 현지사회에 수용될 희망이 없고 소외와 고립,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조상의 땅을 이상적인 모국으로 생각, 모국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관여, 모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등 모국에의 귀향 의식과 현지사회로부터 고립이다. 그러나 그녀는 최근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이민, 이주, 국적변경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⁷⁾.

이와 같은 재일한인 민족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시대 민족과 국가와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지역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다민족 다문화시대의 도래 이후 급변하고 있는 일본사회와 실제로 재일한인의 내부 변화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글로벌시대 재일한인 청소년 자신들이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면접조사를 통해 그들의 입장에서 조명해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에는 재일한인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민단계의 한국적과 총련계의 조선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적과 조선적의 생성배경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민단계의 한국적과 총련계의 조선적 구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재일조선인’이란 한반도 출신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의 도일은 한일합방이 시작된 1910년 전까지만 해도 돈 벌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이후에는 일본식민

6) ソニア リヤン `中西恭子(訳)(2005)『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明石書店 `pp.139-141 참조

7) Safran, Willam(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Spring), pp.83-99

지 출신자들이 외지인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1939년 이후에는 강제징용이나 징병에 의해 도입한 조선인들이 많았다. 따라서 재일조선인들은 1945년 일본의 패전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일본국민’으로 존재한 상태였다8).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계기로 재일조선인들은 ‘일본국민’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일본국적 상실이라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제법상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구식민지 출신자들에게 국적선택의 용인이나 국적박탈을 못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일본정부는 구식민지 출신자들에게 국적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국적 상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된 재일조선인은 결국 일본 내에서 ‘무국적’ 상태가 되고 말았다.

1945년 일본의 패전,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한국적’이 공식적으로 형성되고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재일조선인’이 ‘한국적’과 ‘조선적(무국적)’으로 이분되면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이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한국적 보유자에게만 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1947년 이후 ‘외국인등록령’, 혹은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일본에서 ‘한국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재일조선인’만이 ‘한국적’으로 남게 되고 민단과 총련이라는 남북한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조선적’을 유지한 ‘재일조선인’들은 ‘무국적’ 상태로 고착화된 것이다9).

이러한 가운데 한국정부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 시행,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과 2004년 개정을 통하여 한국적의 대상과 범위에 외국국적 보유자까지 확대시켜 중국조선족까지 포함시키고 있지만 총련계 조선적들은 여전히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다10).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단계와 총련계를 포함하는 재일한인들의 민족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떠한 유형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8) 일본 정부는 1991년 5월 출입국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일본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일본 국가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 구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 모두에게 ‘특별영주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9) 정인섭(1996)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p.22 참조

10)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며 법률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분석틀

재일한인 청소년의 생활방식과 민족정체성의 지향성에 대하여 1994년도 후쿠오카·김명수의 기존연구에 의하면, 생활방식의 지향성이나 민족의식의 강약 정도에 근거하여 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¹¹⁾. 그 중에서 민족의식이 강한 집단의 유형은 ‘조국지향형’, ‘동포지향형’, ‘공생지향형’, ‘개인지향형’ 순이었고 민족정체성이 약한 집단으로서는 ‘갈등 회피형’, ‘갈등형’, ‘귀화지향형’의 순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3> 재일한인 청소년의 생활방식 구분에 의한 7개 유형

생활방식의 지향성	유사한 성격 집단	집단의 특징
조국지향형	총련소속	민족학교 출신자 및 민족 귀속의식이 강함
동포지향형	총련 또는 민단 간부, 활동가	재일동포사회의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민족내실
공생지향형	민투련 회원	민족차별 투쟁과 일본사회 내에서 상생의 사회 만들기 노력
개인지향형	민단소속	개인적 노력과 일류대학, 대기업 취직이 목표
귀화지향형	민단소속	주변 일본사람과 똑같이 되기 위한 귀화가 목표
갈등회피형	민단소속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당히 행동하는 유형
갈등형	민단소속	항상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유형

주) 상기 표는福岡安則·金明秀『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東京大學出版會, 1997)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먼저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유형화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소개하면 ‘조국지향형’이란 민족학교를 졸업한 총련에의 귀속의식이 강한 조선적 소유의 재일한인 청소년들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자신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재외국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며 ‘재일한인’이라는 현실보다는 ‘조국을 위하여’라는 이상적인 현실을 안고 살아가는 유형이다.

11) 福岡安則(1994)『在日韓国・朝鮮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中央公論社, pp.18-19 참조

비슷한 형태의 ‘동포지향형’은 재일한인 청년회의 간부나 일군(활동가)으로 활약하고 있는 청소년집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일본사회에서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살아가기 쉬운 여건조성과 ‘민족으로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유형이다. 좀 더 진보적인 형태의 ‘공생지향형’은 과거 ‘민투련’과 같이 민족차별 철폐운동을 실천하고 일본인과 재일한인이 상호 차이를 인정하여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¹²⁾.

‘개인지향형’은 재일한인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대표하는 유형이다. 열심히 공부하여 일류대학 졸업과 외국기업이나 일본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귀화지향형은 ‘자기 주변의 일본인과 똑같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실제로도 귀화의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갈등회피형’은 ‘재일한인’으로서 일본사회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현실을 비판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마음 편하게 행동하는 유형을 말한다. 반대로 ‘갈등형’은 ‘재일한인’으로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서 자신을 ‘일본인’, 또는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어느 한 쪽으로 귀속시키기 어렵고 정체성의 갈등과 혼란 속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유형을 지칭한다.

이상과 같이 후쿠오카와 김명수(1997) 제시한 재일한인 청소년의 유형연구는 재일한인과 일본사회와의 관계만을 상정하는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다민족 다문화시대의 도래 이후 재일한인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력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연구를 참고로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면접조사에 응한 재일한인 청소년 35명에 대한 질적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이 연구의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주로 민단계 청소년들이 ‘개인지향형’에서 ‘글로벌지향형’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낸다.¹³⁾ 과거 ‘개인지향형’의 유형은 재일한인이라는 사회적 차별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일본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기업이나 일본대기업에 취

12) 민투련의 결성은 1970년에 시작된 ‘히다치재판’에서 만난 동료들을 중심으로 1975년 ‘민족차별과 싸우는 연락협의회(민투련)’가 모태가 되었다. 일본전국 조직으로 각 지부가 구체적인 차별을 발견하여 상호연계를 통한 차별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치단체의 공영주택 입주, 일본 육영회의 장학금 지급, 직업차별 철폐, 지방공무원채용 등 국적차별을 없애기 위해 각지에서 운동이 전개되었다.

13) 福岡安則·金明秀『在日韓人青年の生活と意識』(東京大学出版会, 1997), pp.129-135참조

직하려는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단계의 청소년들이 자기부모의 영향으로 개인지향형 보다는 민족정체성이나 민족의식의 회복차원에서 점차 글로벌지향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국제화의 영향으로 부모세대의 재일한인 1세들이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일한인 3세~재일한인 4세들의 안목과 시야를 넓혀주고 재일한인은 물론 재외한인과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제2유형은 ‘조국지향형’에서 ‘동포지향형’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조국지향형’은 주로 민족학교 출신자들로 총련에의 귀속의식이 강한 조선적의 청소년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한인 3세~재일한인 4세들이 ‘한국적’보다는 자신의 고향이 북한도 남한도 아닌 조선(한반도)이라고 주장하는 재일조선인들이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조선적 소유자들이 한국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재일동포생활센터’를 설립하여 일본사회에서 내실 있는 동포사회 만들기에 노력하는 모습에서 ‘동포지향형’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동포지향형’의 청소년들은 일본사회 내의 민족단체나 조직에서 적극적인 민족활동을 선도하며 민단 청년회 간부나 총련의 활동가를 준비하는 간부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유형은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귀화지향형’에서 ‘독자지향형’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귀화지향형’이란 재일한인들이 주변의 일본인과 똑같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 귀화한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 10명을 대상으로 재일한인 청소년을 면접 조사한 결과, 귀화는 했지만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한국인임을 강조하는 유형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유형에는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의 지향점이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재일한인’이라는 새로운 독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표 4>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의 유형 분류

유형	국적별 구분	유형화 분류	
제1유형	민단(한국 국적자) 17명	개인지향형	글로벌지향형
제2유형	총련(조선국적자) 8명	조국지향형	동포지향형
제3유형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10명	귀화지향형	독자지향형
합계	총 35명		

주) 재일한인 청소년 35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14) 장인성(2003) 「총련계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2권4호, p.59 참조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총련의 변화로서 민단계 학생들에게 민족학교 개방, 각 지부차원의 한국과의 교류 증대 등을 지적하고 있다.

4. 민족정체성에 관한 사례분석 결과

다음은 면접조사에 응해준 재일한인 35명을 대상으로 분석틀에 근거하여 사례결과를 바탕으로 민족정체성의 유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연구대상자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접대상자의 출신 지역별로는 도쿄지역이 19명, 오사카지역이 11명, 후쿠오카지역이 5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1명, 여성이 14명으로 남성이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는 면접조사의 목적이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유형에 관한 의견 및 전문가의 조언이었기 때문에 19세에서 51세까지 다양했다. 이민 세대별 분류에서는 재일한인 2세가 6명, 재일한인 3세가 26명, 재일한인 4세가 3명 등 재일한인 3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구성별로는 회사원, 대학생, 청년회간부, 취업준비생, 연구원, 재수생, 기자 등 업종별로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면 면접대상자들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전술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각 유형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자.

이 논문에서는 재일한인을 지칭하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고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먼저 해방전후 민단체에서 활동하며 한국국민, 또는 한국 국적자는 ‘재일한국인’, 주로 총련계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국적상실과 무국적 상태로 머물러있는 경우 ‘재일조선인’,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새로운 민족정체성을 자각하거나 추구하는 경우 ‘재일’한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민단(한국 국적자)- 글로벌 지향

민단체 재일한국인 청소년들은 대개 부모의 권유로 한국에 어학연수나 유학을 경험한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경험이 없는 경우 대부분 한국어가 서투르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일본학교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단이 지원하는 청년회 활동이나 잼보리 대회 등 민족성이나 정체성이 발휘될 만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민단체 재일한국인의 경우 일본사회에 귀화하거나 동화되어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씨는 동경본부청년회장이다. “제가 민단 청년회 회장이 된 계기는 ‘재일본 한국인 청년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잼보리대회에 참가한 이후 선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후배들에게 전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청년회 활동에 꾸준히 참가해 왔다.” 라고 한다. 현재 그는 회사원이지만 아내도 일본훗카이도 출신의 ‘재일한국인’으로 이곳 청년회 활동을 통하여 만났다고 했으며 지금도 틈나는 대

로 부부가 함께 청년회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L씨는 “나는 ‘재일한국인’과 1980년대 독일한 뉴커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5세이다. 아버지가 민단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늘 민단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경한국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글로벌 시대 ‘재일한국인’들에게 민족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정부나 일본정부가 한인의 역사를 가르쳐 한인의 실정을 널리 알리고 이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즉, ‘재일한국인’으로서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초국가적인 다민족 다문화시대 한국, 재일한국인, 재외한인과의 연대가능성은 먼저 재일한국인의 실정과 아픔을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제기했다.

이상과 같이 민단계 재일한국인들에게서는 총련계 재일조선인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민족학교 선후배를 중심으로 하는 끈끈한 정과 민족교육 및 민족경제를 중시하는 민족간 연대는 약하다. 그 대신에 민족학교나 대학 서클활동을 통한 민족의식의 재구축이 없이 일본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재일한국인 1세와 민단이 지원하는 각종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동료의식과 민족정체성을 배양시킴으로서 약한연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단계 재일한국인 청소년의 활동 방식은 약한연대의 글로벌 지향형이지만 여전히 한국인에 가까운 민족정체성을 지향하며 총련계 재일조선인 청소년보다는 확대개방적인 네트워크 구축(일본, 한국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총련(조선국적자)- 동포지향

현재 총련계 재일조선인 청소년의 경우 한류와 일본정부의 압박정책으로 인해 대개 재일조선인 1세의 영향으로 국적을 조선적에서 한국적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가 한국과 친밀한 청소년일수록 한국방문횟수나 교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 응한 재일조선인 청소년 7명은 ‘유학동(재일본조선인유학동맹)’출신이었지만 일본 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나 핵개발의혹 등으로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민단계 재일조선인 청소년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북한(총련)에 호의적이기 보다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면접조사 도중에 아직도 자기들(친구사이)사이에는 가끔씩 ‘동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그들 사이에 자신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재일코리아인’이나 ‘재일한인’을 사용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했

으며 과거에 그들 자신들이 일본통명을 사용했을지라도 현재는 한국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국적자인 C씨는 “내 자신이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선어를 완벽하게 통달하고 싶고 극단적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본관과 한국이름을 몸에 새기고 다니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유학동 출신 K씨와 J씨는 “유학동연구회(학습회)를 통하여 재일조선인의 역사, 문화, 법적지위나 권리 등을 공부하여 자신이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즉 유학동 활동을 통하여 일본 속에서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일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겠다.” 라고 말했다. 유학동연구회는 총련계 ‘재일조선인’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재일조선인의 역사, 문화전통, 재일본조선인형성사,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와 권리, 전후보상 문제처리 등 재일조선인의 주된 관심분야에 대하여 매주 2회 이상 토론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지역별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학동’은 재일조선인 청소년들이 대학생활을 통하여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재인식, 자기 정체성의 형성,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재일조선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본사회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민족적인 자부심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었다.

총련계 재일조선인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졸업까지 민족학교 출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일본학교를 졸업한 경우 민족의식이 희박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의식이 없이 지내다가 대학 유학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민족의 재발견과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즉 유학동 활동은 민족정체성으로 방황하거나 혼란을 겪고있는 총련계 재일조선인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재발견의 계기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재일조선인 청소년의 부모나 같은 대학동료의 권유로 유학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 북한정세에 밝지만 일본 내 동포중심의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회와는 상당히 단절된 생활형태를 보인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련계 재일조선인 청소년들은 대학졸업 전후를 통하여 세대 간 단절이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하였다. 왜냐하면 대학졸업 전까지는 재일조선인들이 각종 민족단체나 조직에 참여하여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지만 대학졸업 후에는 OB나 OG 등 선후배간 모임, 기타 단체나 조직에 가입하여 재일조선인 단체나 조직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일본사회에 동화되면서 민족단체나 조직에서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당분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총련계 재일조선인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달리 일본, 한국, 북한사회와의 민족적인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로 일본 내 자기들만의 '재일조선인'이라는 동포지향형의 자기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총련계 재일조선인 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민족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대학졸업 후 사회인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단체나 조직과의 단절현상의 극복과 민족의식의 재발견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계승되고 통합되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3)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 독자지향

다음은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에 대해서는 재일한인 청소년 10명을 인터뷰 결과, 이들은 일본사회의 차별적 경험과 환경에 의해 일본 내 소수민족으로서 한국인(민족)이라는 젊은 세대 특유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유형들이다. 반대로 일본사회의 차별적 상황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의식해 버리는 유형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재일한인'의 독자지향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⁵⁾.

일본국적자인 P씨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서도 가령 습관이나 감정 등이 ‘동질의 한국인’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재일한인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법적으로 한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재일한인일지라도 문화나 습관적인 부분은 일본적일수도 있다. 한국인과 재일한인은 비슷한 습관도 있지만 의식이나 습관적인 상호 허용범위, 척도(기준)가 다르며 재일한인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본식이다.”

상기와 같이 재일한인 사회에서 '한국인'을 거론할 때, 재일동포 또는 일본국적취득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일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인성'을 가리키며 또한 일본국적자로서는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만의 한국인성' 혹은 '한국에 뿌

15) 조현미(2002) 「韓日間 相互意識의 變化와 에스닉 아이덴티티」 『일본어문학』 제20집, pp. 425-426 참조. 이 연구에 의하면 '재일'이라는 용어는 재일동포들이 자신들의 주체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용어의 공통된 성향에 대하여 종래의 강한 '조국' 지향적 의식에서 탈피하여 재일동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즉 고국의 동포와는 다르지만 일본인과는 다른 새로운 민족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리를 둔 일본국적자의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 뿌리를 둔 재일한인 청소년의 한국인성, 혹은 민족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그들 자신들이 현재 몸소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후속연구과제로서 보다 많은 일본국적자를 조사하여 그러한 독자적인 한국인성(정체성)을 느끼는 구체적인 장면과 대상을 실증적으로 입증해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게 검증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글로벌시대 재일한인 청소년의 정체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최근 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면접조사 결과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1994년 후쿠오카와 김명수가 수행한 재일한인 청소년의 생활방식과 지향성에 관한 유형별 분류 연구가 이 연구의 분석틀이나 연구방법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1988년 이후 한국적, 조선적,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를 포함하여 약 150명의 재일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한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당시 그들의 연구결과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시대 재일한인 사회의 변화, 특히 청소년들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 내 재일한인 청소년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민족정체성의 변화를 짚어보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조명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민족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민족정체성의 지향점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은 향후 재일한인 사회의 정책수립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목표 및 방향성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면접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민단계 한국적자의 경우 일본사회 내에서의 취직이나 성공을 위한 개인 지향에서 최근 한류나 초국가적인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나 재외한인, 혹은 기타 외국과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글로벌 지향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한인 내부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반동으로 청소년들의 만남이나 이벤트를 주선하는 각종 모임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부모세대의 이데

올로기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민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선이나 총련과 민단의 연대 움직임 등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과거 부모세대가 생각하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조국으로서 한반도를 지향하는 조국지향형에서 이제는 일본에 정착해야 될 자신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차원에서 일본사회 내부의 동포간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동포지향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과거 일본 내 소수민족으로서 재일한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일본 내 외국인의 급증과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도래로 민족차별이나 취업차별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외국인과의 공존과 공생이 일본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재일한인들도 일본지역사회와의 공존과 공생의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는 재일한인들이 지역사회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생활자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인들의 일본생활 지원 및 연대강화 모색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과거 일본국적 취득을 지향하는 귀화지향형에서 ‘재일’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독자지향형의 출현을 들 수 있다¹⁶⁾.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재일한인들에게 있어서 귀화는 배신행위이었으며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화했을지라도 한인사회 내에서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사회 내의 귀화자와 뉴커머의 증가, 재일한인의 노령화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기존의 민단, 총련, 귀화자로 구분되는 ‘재일’이라는 민족의 틀이 크게 완화되었다. 즉, 글로벌시대 재일한인 사회의 민족정체성의 위기의식과 다양성이 반대로 새로운 ‘재일’이라는 틀 속에 재일한인 모두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¹⁷⁾.

이 연구의 시사점은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의 유형은 일본 내의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영향으로 글로벌 지향, 동포지향, 독자지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일본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졸업 전후 재일한인들의 민족정체성의 존재양태, 단절과 지속에 관한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6) 原尻英樹 (1998)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 講談社, p.3 참조

17) 민단은 재일한인의 세대교체와 함께 국제결혼의 증가, 출생자 수의 감소, 귀화자의 증가 등으로 재일한인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05년 2월24일 개최된 임시 중앙대회에서 일본국적 재일한인에게도 단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침을 결정한 적이 있다.

【参考文献】

- 김정구(2004)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33집
- 손기만(2001) 「북한의 해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삼열(1952) 「북한의 재일동포정책과 조총련」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현미(2002) 「韓日間 相互意識의 變化와 에스닉 아이덴티티」 『일본어문학』 제20집
- 전준(1972) 『조총련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정인섭(1996)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인성(2003) 「총련계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2권4호
- 진희관(1998) 「조총련연구」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한영혜(2006)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한국사회학회』 제71집
- ソニア・リャン、中西恭子 (譯) (2005)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 明石書店
- 原尻英樹 (1998)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 講談社
- 福岡安則 (1994) 『在日韓國・朝鮮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央公論社
- 福岡安則・金明秀 (1997)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大學出版會
- 日本法務省入國管理局 (2006) 『平成19年版在留外國人統計』 財団法人入管協會
- Safran, Willam(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Spring)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従来の在日コリアンの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の危機意識に重点をおくよりはグローバル時代に在日コリアンの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そのもの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きたかを分析することである。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の背景にあるのは、日本の同化政策もあるが、1980年まで日本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の日本国籍の取得は彼らの経済事情や政治思想などが考慮対象だったので相当難しかったが、1980年代後半になると多様な国から入国する外国人が増え、日本の多民族多文化社会の到来によって帰化への制度的な装置が緩和されたことにある。

本研究の面接調査の対象は年齢と職業、居住地が多様な35人の在日コリアン男女で構成されている。

本研究の調査結果によれば、日本国籍を取得している在日コリアンは従来彼らが主張していた在日コリアンの主流ではなく、彼らの独自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世界観を構築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具体的に在日コリアンの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の主な変化は三つが考えられる。第一に、超国家的なグローバル時代を迎えて日本社会内における就職や成功という個人志向型から海外とのネットワークを重視するグローバル志向型に変わってきている。第二に、在日コリアン1世代の帰国志向型から同胞間のネットワークを重視する同胞志向型に変わっている。第三に、過去日本国籍を取得して日本人化を目指す帰化志向型から独自の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の構築を目指す独自志向型の出現である。

本研究の示唆点は日本の多民族多文化社会の到来とその影響による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化と在日コリアンの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が日本社会の変化と密接に関連していることである。

キーワード： 在日コリアン、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同化政策、多民族多文化、
グローバル時代、個人志向型、同胞志向型、帰化志向型、独自志向型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